

## 신도(神道)는 종교인가?

일본에서 종교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무신론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종 연중행사는 물론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각종 종교적 의식이 행해짐

### □ 신도(神道)의 정의

- 일본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사를 찾아가 참배를 하고 장례는 불교적 행사로, 결혼식은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
- 일본은 다신교 혹은 다종교 국가로 불리는데, 두 개 이상의 종교를 같이 믿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임
- 일본의 토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신을 모시는 종교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
- 일본의 종교연감에 따르면 신도란 ‘일본민족 고유의 신과 신령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발전한 종교를 총칭한다.’고 되어 있음
- 또한 신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생활 속에서 이어져 온 태도나 사고방식까지도 포함한다고 덧붙이고 있음
- 실제 신도의 정의는 종교학자들마다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어 뚜렷한 개념을 정리하기가 어려움

- ‘일본에서 신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사의 마츠리(祭り)뿐으로 그것이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신앙과 뒤섞으면서 그 형태가 변했다’ 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‘신도는 역사상 일본에 들어온 여러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일본 고유의 종교를 총괄하는 말이다’ 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음
- 한편 ‘신도가 종교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. 단지 일본의 풍토에서 생겨 일본민족과 더불어 발전해 온 종교문화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, 일본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전통문화일 따름이다. 따라서 신도는 종교로서의 고유한 성격이나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’ 고 종교로서의 신도를 부인하는 학자도 적지 않음
- 이 뿐만이 아니라 신도의 정의는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 숫자만큼이나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- 이 같은 신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음
  - 첫째, 신사의 신앙으로서의 신도를 들 수 있는데, 이는 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 전반을 신도라고 보는 관점임
  - 둘째, 마츠리와 신화의 전승으로의 신도가 있는데, 신도에는 보편적으로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없고 그 대신 신화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임
  - 셋째, 일본인의 신앙적 신도로, 일본민족 고유의 신앙이 바로 신도라고 보는 것으로 일본의 종교학자는 물론 외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통념으로 볼 수 있음

## □ 신도(神道)의 특징

- 신도라는 말은 제31대 천황인 요우메이(用明, 585~587년)천황의 즉

- 위전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고사기(古事記)에 기록되어 있음
- ‘천황은 불교를 믿고 신도를 숭배했다(天皇信佛法尊神道))’ 라고 적혀있는데, 이 당시부터 일본에는 신도가 불교와 대비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임
  -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로 부터 전해진 종교였던 불교를 접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 즉 신도를 의식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임
- 결론적으로 일본의 신도는 사회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스며들어 있는 관습 혹은 의례와 신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음
- 일본 고유의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, 그래서 불교, 유교, 도교 등과 같은 외래종교가 일본으로 유입되기 이전의 모든 일본 고유의 종교적, 사회적, 문화적 특징이 전부 신도의 영역으로 규정되기도 함